

# 별난 수행 (하)

송화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어머니 늘 걱정을 하셨다. "너 고기 잘 먹  
는 남자 만나면 너 같이 고기 음식하기 싫  
어하고 밥세도 싫어하면 쫓겨나. 시집어른  
들께도 그렇게 성질낼래?" "난 내가 안 먹  
으니가 고기 음식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먹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 먹으라지 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장담을 했었는데... 난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위해 갈비탕도 끓이고 갈비찜도  
만든다. 밥세가 그렇게 예전처럼 날 힘들게  
하지만... 맛있게 하지는 못하지만 정성은  
다 하고 있다. 친정어머니께 죄송함이 없선  
다. 친정식구들에게 한 번도 헤드리지 않  
고. 그렇게 성질내던 일이 너무도 부끄러워  
진다.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남편을 부처님같  
이 그리고 시어른들을 부처님같이 대하라  
고. 그러나 부처님께도 가끔 화를 내고 설  
섭해 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원치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비워야 한다. 이 평범한 진리가 너  
무도 어려운 건 무슨 이유일까?

나는 내가 참 북 많은 사람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에  
겐 좋은 스승들이 계시고, 나의 직업은 세  
상 속에서 복을 짓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  
이다.

내 직장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의 일  
상은 삼라만상의 만남과 함께 나의 아상  
으로 크락과 지옥을 넘나드는 특별함이 있  
다. 인생의 대 선배인 어르신들과 함께 하  
루를 열고,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어르  
신들과 보내면서 나는 자주, 아니 매순간  
부처님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복덕  
을 쌓을 좋은 기회를 매순간 만나며, 매순  
간 악업을 쌓을 순간과 대면하게 된다.

손이 차다며 익모초를 길러다 주시는 약  
수여래 같은 어르신도 계시고, 시시비비 따  
지기 좋아하는 어르신 때문에 어리석은 내

모습을 깨닫기도 하고, 육체의 나약함도 마  
음먹기에 달렸으며 투병생활에서 얻은 지  
혜를 나누어 주시는 어르신도 나를 지켜보  
고 계신다.

이렇게 나는 좋은 스승과 자주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 삶의 색다른 기쁨이 있다. 좋은  
스승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귀감이 되는 스승도 있고 내 마  
음을 아프게 하는 이도 스승임에 틀림없다.

센터 회원어르신은 총 3만 명, 매일 오시  
는 3000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분들은  
모두 내 스승이다.

한다.  
난 잠들기 전 짧은 성찰의 시간을 만든  
다. "좋은 사람의 좋은 면은 닮아가고 남의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  
나를 점검하는 수행의 한 조각은 이렇게 하  
루하루 퍼즐을 맞추어 가고 있다.

2003년인 것 같다.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나의 일상 속에는 매일 좋은 일만 있  
는 건 아니다. 너무도 무례한 억지를 쓰는  
어르신도 계시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잇속만을 생각하는 어르신도 계신다.

그리고 이유 없이 욕을 먹어야 할 때도

## 원치 않아도 해야 할 일은 마음 비워야

## 어르신들 부처님으로 여기며 정진할 것

매일 많은 사람과 만나다보니 나도 모르  
게 구업을 자주 짓게 된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 한다면서 혹여  
나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 받지 않았나?'  
반성하고 살다가도 참나를 놓치는 허공과  
우매한 판단으로 구업은 쌓여간다.

그럴때마다 하루에 한번은 천수경을 읽  
으러던 성진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많은 사람과 만나서 말을 하다보면 구  
업을 많이 짓게 되고, 자기 자신의 마음자  
리를 보지 못하고 남 탓하게 된다"는 말씀  
이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늘 나의 철학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외할머니의 "세지 혀로 짓  
는 악업을 쌓을 순간과 무서운지 모른다. 한번  
빨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어. 늘 말을 조  
심해라. 화진아!"라는 말씀도 떠오른다. 늘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실천은 쉽지가

자주 생긴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지켜가는  
나의 생활에 큰 성찰의 울림이 있었다. 직  
원교육시간에 당시 조계사 주지이시고 지  
금은 불광사 회주로 계시는 지홍 스님의 말  
씀은 날 바로 서게 했다.

"하루 3000명의 어르신께서 오신다고 합  
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몇 분의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십니까? 하루  
에 3000배 짝 수행을 못해도 여러분은 그  
이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오시는 어르신 3000분께 웃으며 인사  
올리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며 끝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알미운 어르신께 마음이  
나지 않더라도 웃으며 인사 한번 해 보십시  
요. 작정을 하고 몇 번만 해 보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러도 알미운지. 그 어르신  
의 행동이 내속에 숨어 있는, 보이고 싶지  
않은 내 치부랑 너무도 닮아있지 않은지 한



그림 · 문병성

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선생님들이 서 있  
는 이 곳, 이 순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세  
요. 수처자주란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매일 같이 2000명의 어  
르신들께 식권을 나누어 드리는 일을 하면  
서 의식적으로 1000분의 어르신께 정갈 마  
음을 다해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서 오  
세요!"라며.

한 달을 작성해서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도 인사를 하고 나니 점점 짜증과 육체적인  
피로가 탈해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생인 까닭에 또 다시 원망과 미움과 투정  
의 씨앗을 펼쳐 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나의 스승과 반면교사를 만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어르신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나에겐 네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할머니, 할머니,  
나를 위해 늘 기도가 생활이 된 외할머니,  
그리고 올해 백세가 되신 우리 시할머니와  
아흔 다섯이 되신 시외할머니 이렇게 네 분  
의 할머니가 나의 곁에 계신다. 나의 복 짓

는 복지사업은 네 분의 할머니의 응원과 애  
정 속에서 에너지로 발한다.  
나는 어르신이 좋다. 애정과 고민을 던져  
주시는 네 분의 할머니가 사랑스럽다. 나도  
사랑받는 어르신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난  
꿈을 꾸다.

어르신들의 꿈과 마음을 헤아리는 문수  
보살 같은 지혜와, 관세음보살 같은 따뜻한  
을 지닐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또 센터의  
어르신들이 가지신 문수보살과 같은 지혜  
를 전수 받고, 그 분들을 부처님같이 대할  
수 있도록 수행하겠다고.

기름은 어르신께 화도 내고 부족한 능력  
에 힘겨워도 하겠지만, 마음자리 찾는 이  
불교공부를 늦추지 않고 내 생활 속의 3만  
명의 부처님을 만나 보면서 이 부족함을 채  
우고 반성해 나갈 것이다. 3만 명의 스승들  
과 매일 3000분의 부처님과 함께 깨어 있  
으면 언젠가는 이 윤회의 바퀴에서 해탈할  
수 있는 작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오늘도 난 서울노인복지센터라는 수행  
처로 새로운 부처님과 보살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별난 데이트를 한다. 내 마음 속 부  
처를 찾기 위해... (끝)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되어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필(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spark@buddhapia.com

### 김문기 박사의

##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현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  
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  
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  
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  
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전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 &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 이내  
※ 맞춤형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  
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광한의원 의 윤광원장은 수십년동  
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  
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화  
전정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  
(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  
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  
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  
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르신 분

윤광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치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회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소연구원: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

## 현대결혼연구원

## 간(肝) 이

간지방간염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  
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  
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  
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  
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  
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  
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  
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  
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  
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항아  
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미를 토종 (민속농원)